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국내손보사, 만성적인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 개선 유도

- FY08. 4~9월 중 재보험 거래규모는 5조 4,6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.9% 증가하였음.
 - 부문별로는 인수계약을 타보험회사에 재보험으로 넘기는 출재부문이 2조 6,919억원으로 나타났으며, 타보험회사의 인수계약을 재보험으로 받아들이는 수재부문이 2조 7,697억원을 기록함.
 - 이는 손보업계의 보유확대 방침과 전업재보험사의 수재보험료 증가(23.4%)로 인해 FY07까지 지속적인 초과출재 현상이 초과수재로 반전된 것임.
- FY08. 4~9월 기간중 손보사들은 수입보험료의 13.3%를 출재하였으며, 이 중 41.6%가 해외에 출재한 것임.
 - 회사별로는 국내사가 수입보험료의 10.7%를 출재(해외출재비중: 29.3%)한 반면, 외국사는 25.3%를 출재(해외출재비중: 97.1%)한 것으로 나타남.
 - 동기간중 재보험 해외수지손실은 손보업계의 보유비율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976억원 감소한 2,003억원을 시현함.
- 재보험 관리에 있어서는 국제보험기구(IAIS)의 권고내용을 반영한 모범기준이 마련되고 재보험업무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핵심 분야임에도 거래선 관리 및 인수지침 마련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임.
 - 따라서 재보험이 보험회사간의 전문적인 거래인만큼 자율적인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범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.
- 정부는 해외 재보험수지 적자가 개선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객관적, 과학적인 보유규모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함으로써 만성적인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.

(손보사 재보험거래 현황 및 시사점-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, 12/8)